

전 남

나주 금성고 남녀공학 전환 갈등

“거점학교 좌초 우려” 나주高 반발 학부모들 찬반 나뉘어 대립 양상

나주지역 교육계가 사립학교인 금성고등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7일 나주교육진흥재단에 따르면 금성고등학교의 남녀공학전환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6일 시민회관에서 '나주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금성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경우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돼 거점학교로 발판을 다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금성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경우 학생 수급에 차질이 생겨 거점학교 육성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황 교장은 “지역거점학교 육성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능하나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모두 놓칠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성과 신동은 교장은 “나주 지역 중학교 졸업생 가운데 여학생은 지역 고교에서 전체 졸업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학생이 진학할 수 있는 인문계고를 확대해 여학생들의 역할 유출을 막는 등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사립학교인 금성고의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공립학교인 나주고 측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자 해당 학교 학부모들도 찬·반으로 나뉘어져 대립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여학생들이 진학할 인문계 고교 정원이 제한적인 만큼 여학생들의 역할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금성고의 남녀공학도 신중히 검토해 볼 단계다”며 “신의의 경쟁을 통해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학부모 B씨는 “여학생을 수용할 조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사립학교인 만큼 재단 측이 재원확보 계획 등 남녀공학으로 전환시 투자계획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주지역의 경우 12개 고등학교에 입학정원이 1200여명인 반면 중학생 졸업생은 800여명에 불과해 각 고교들이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등 입학정원을 채우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최대 농·어업 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농·수·축산업의 마케팅 강화에도 노력한 한 해였다.

그 결과 친환경 인증면적이 2011년 5월말 기준 1만5578ha로 전국 최대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해남 농수산물을 대한 친환경 브랜드사업을 추진, 서울 종로구 34개 초등학교에 급식용 쌀을 납품하기도 했다.

박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함께 ▲남부권 시설 무화과와 단감, 화훼 ▲중부권 미니 방호박, 딸기, 양파종자 배려, 버섯 ▲서부권

수면에 수산종묘 및 종재 방류를 추진함으로써 어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다음으로 주력한 분야가 관광개발과 투자유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살리기다. 해남만의 매력있는 관광개발을 위해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우수영~제주간 쾌속선 운항 추진 등 관광핵심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문화포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 선정과 행안부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선정으로 우수영 관광지 서버이별 게임장, 우수영 강강술래길 등 체험관광 상품들을 새롭게 기획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빛을 낸 시책이 바로 스포츠 마케팅이다. 스포츠 인프라의 구축으로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군은 지난 1년간 전국대회 7개 개최와 동계 진지훈련 등을 통해 64여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

박 군수는 해남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쳤다.

박 군수는 “해남 자존심을 바로 잡고 세우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며 “청렴과 군민의식 개혁운동이 제자리를 잡은 만큼 이를 토대로 해남의 경쟁력을 하나하나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장마철 고구마 심기

장마로 인해 굳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 원월리 주민들이 고구마 줄기를 옮겨 심고 있다. 남미지역이 원산지인 고구마는 줄기를 잘라 번식시킨다. <담양군 제공>

장마로 인해 굳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 원월리 주민들이 고구마 줄기를 옮겨 심고 있다. 남미지역이 원산지인 고구마는 줄기를 잘라 번식시킨다. <담양군 제공>

장마로 인해 굳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 원월리 주민들이 고구마 줄기를 옮겨 심고 있다. 남미지역이 원산지인 고구마는 줄기를 잘라 번식시킨다. <담양군 제공>

장마로 인해 굳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 원월리 주민들이 고구마 줄기를 옮겨 심고 있다. 남미지역이 원산지인 고구마는 줄기를 잘라 번식시킨다. <담양군 제공>

장마로 인해 굳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 원월리 주민들이 고구마 줄기를 옮겨 심고 있다. 남미지역이 원산지인 고구마는 줄기를 잘라 번식시킨다. <담양군 제공>

장마로 인해 굳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 원월리 주민들이 고구마 줄기를 옮겨 심고 있다. 남미지역이 원산지인 고구마는 줄기를 잘라 번식시킨다. <담양군 제공>

장마로 인해 굳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 원월리 주민들이 고구마 줄기를 옮겨 심고 있다. 남미지역이 원산지인 고구마는 줄기를 잘라 번식시킨다. <담양군 제공>

장마로 인해 굳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 원월리 주민들이 고구마 줄기를 옮겨 심고 있다. 남미지역이 원산지인 고구마는 줄기를 잘라 번식시킨다. <담양군 제공>

장마로 인해 굳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 원월리 주민들이 고구마 줄기를 옮겨 심고 있다. 남미지역이 원산지인 고구마는 줄기를 잘라 번식시킨다. <담양군 제공>

장마로 인해 굳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담양군 원월리 주민들이 고구마 줄기를 옮겨 심고 있다. 남미지역이 원산지인 고구마는 줄기를 잘라 번식시킨다. <담양군 제공>

■ 세 일 글

“방문객 최우선 서비스 제공”

정장훈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국립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정장훈(52) 월출산 국립공원사무소장은 “저탄소·녹색성장을 목표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 한 차원 높은 공기관리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소장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해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 출신인 정 소장은 조선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총무과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 내장산 사무소장 등을 지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

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 출신인 정 소장은 조선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총무과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 내장산 사무소장 등을 지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

또 정 소장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해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 출신인 정 소장은 조선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총무과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 내장산 사무소장 등을 지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

또 정 소장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해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 출신인 정 소장은 조선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총무과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 내장산 사무소장 등을 지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

또 정 소장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해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 출신인 정 소장은 조선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총무과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 내장산 사무소장 등을 지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

또 정 소장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해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 출신인 정 소장은 조선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총무과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 내장산 사무소장 등을 지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

또 정 소장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해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 출신인 정 소장은 조선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총무과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 내장산 사무소장 등을 지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

또 정 소장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해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 출신인 정 소장은 조선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총무과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 내장산 사무소장 등을 지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

또 정 소장은 “월출산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해 미래세대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 출신인 정 소장은 조선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첫발을 내디딘 후 국립공원관리공단 총무과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장, 내장산 사무소장 등을 지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희기자 lsh@

감정위원·원소장자 상대 법적대응

강진 청자박물관 대금 반환 소송 준비

강진 청자박물관은 지난 2007년 청자물 구입 당시 뒷돈을 받고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감정위원 최모씨와 원소장자 이모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강진군은 원소장자가 소송과정에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액에 상응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관할을 받아 지난달 14일자로 가압류 조치했다.

또 이씨에게 당시 사들인 유물을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씨와 감정위원 최씨를 사기죄로 추가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상식 청자박물관장은 “청자매입 과정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당시 감정위원과 소장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앞으로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강진군은 원소장자가 소송과정에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액에 상응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관할을 받아 지난달 14일자로 가압류 조치했다.

또 이씨에게 당시 사들인 유물을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씨와 감정위원 최씨를 사기죄로 추가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상식 청자박물관장은 “청자매입 과정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당시 감정위원과 소장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앞으로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강진군은 원소장자가 소송과정에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액에 상응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관할을 받아 지난달 14일자로 가압류 조치했다.

또 이씨에게 당시 사들인 유물을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씨와 감정위원 최씨를 사기죄로 추가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상식 청자박물관장은 “청자매입 과정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당시 감정위원과 소장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며 “앞으로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강진군은 원소장자가 소송과정에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액에 상응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관할을 받아 지난달 14일자로 가압류 조치했다.

또 이씨에게 당시 사들인 유물을 반환하고 대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씨와 감정위원 최씨를 사기죄로 추가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선 5기 1년

박철환 해남군수

깨끗한 공직문화 확산 주력

박철환 해남군수는 지난해 7월 취임 즉시 “깨끗한 군정”을 표방하며 청렴 문화를 일구는데 헌신의 힘을 쏟았다. 신뢰받는 군정이 선결과제라 판단, 이를 기반으로 지역화합을 이루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박 군수는 군 조직개편을 통해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제도적으로 부패 삼진아웃제 강화,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깨끗한 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 열린 군정, 화합 군정을 위해서도 ‘마주 이야기’를 추진, 현장 곳곳을 누비며 군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해 왔다. 14개 읍·면 합동 군정보고회도 행정력의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대 농·어업 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농·수·축산업의 마케팅 강화에도 노력한 한 해였다.

그 결과 친환경 인증면적이 2011년 5월말 기준 1만5578ha로 전국 최대라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해남 농수산물을 대한 친환경 브랜드사업을 추진, 서울 종로구 34개 초등학교에 급식용 쌀을 납품하기도 했다.

박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함께 ▲남부권 시설 무화과와 단감, 화훼 ▲중부권 미니 방호박, 딸기, 양파종자 배려, 버섯 ▲서부권



친환경농업 육성 박차

권역별 관광개발 손조

스포츠 마케팅도 성과

황토 겨울감자, 세발나물, 황토인삼 등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땅끝해남 웰빙 고구마 산업특구’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고구마 가공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농·어업의 제2 도약을 위해 유통·가공산업에 눈을 돌린 박 군수는 식품농공단이 조성된 추진,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입지선정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활력을 띠고 있다.

수산자원 조성과 친환경 고품질 화를 위해서도 노력, 해수면과 내

수면에 수산종묘 및 종재 방류를 추진함으로써 어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다음으로 주력한 분야가 관광개발과 투자유치,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살리기다. 해남만의 매력있는 관광개발을 위해 권역별 관광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우수영~제주간 쾌속선 운항 추진 등 관광핵심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문화포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사업 선정과 행안부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선정으로 우수영 관광지 서버이별 게임장, 우수영 강강술래길 등 체험관광 상품들을 새롭게 기획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제적 불황 속에서도 빛을 낸 시책이 바로 스포츠 마케팅이다. 스포츠 인프라의 구축으로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군은 지난 1년간 전국대회 7개 개최와 동계 진지훈련 등을 통해 64여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

박 군수는 해남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쳤다.

박 군수는 “해남 자존심을 바로 잡고 세우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며 “청렴과 군민의식 개혁운동이 제자리를 잡은 만큼 이를 토대로 해남의 경쟁력을 하나하나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남 유기재배 논 생물종 다양

긴꼬리투구새우·풍년새우·우렁이 등 풍부

전남지역 유기재배 논에 생물종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도내 대표적인 유기재배지 14개소를 선정해 토양의 특성과 생물다양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희귀생물인 ‘긴꼬리투구새우’와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풍년새우’, 토종 우렁이 등이 발견됐다.

특히 곡성군 석곡면 유기(자연순환)재배지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개체수가 발견됐다.

또한 유기재배 토양의 경우 다양한 미생물들이 식물과 공생하면서 살아 가고 있었다.

고성대부터 모습이 거의 변하지 않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는 ‘긴꼬리투구새우’는 일반재배 논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유기재배지 단지에

서만 대량으로 발견됐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 김병호연구사는 “유기재배단지의 토양 특성과 생물다양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유기농업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기희기자 song@



긴꼬리투구새우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 · 주차장용지 · 이주자택지 · 협의자택지

솔로몬공인중개사 사무소

보물창고 (061)333-7077
010-3153-4242
위치 : 금천면사무소 맞은편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내곡사광주전남지사영 유지빌딩 501

남구 대촌부근 주거지역
●남구 임촌동 한일베리체 주변 대로변 인근 토지 1990㎡(602평), 일반주거지역, 아스팔트포장도로 접합, 매매가 3.3㎡당 95만원, (슬래브 주택 30평 포함)

소태동 잡종지매매
●동구 소태동 대아파트 부근, 잡종지, 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북개편 국유지 구가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완도 독섬 매매
●완도군 금일면 독섬 매매, 면적 : 198,184㎡(59,950평), 매매가 평당 2만원, 지하수 있음, 종전에 사람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도, 생산관리지역

전원주택지 매매
●남구 대지동(대촌부근), 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13.3㎡당 365,000원)

소촌공단내 공장매매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660㎡(200평), 공장지 264㎡(80평), 매매가 3억.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합, 매매가 3.3㎡당 16만원, 농장 및 개간가능 임야 구함.

농장 및 개간가능 임야 구함
●무인 함평 영광 등 광주인근 토질 좋은 곳, 개간가능 임야도 있음, 10,000㎡ - 70,000㎡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양동 대지433㎡(131평), 전, 임, 1,994㎡(603평) 구 주택 2동, 매매가 1억6,000만원, 조양 경관양호.
010-3616-8698, 062-233-2222

중앙공인중개사

♣.상가건물

☆.일곡지구 30m도로 버스 승강장옆 상가건물 보증금4억 월세1,540만원 매매가125억5천만

☆.매곡동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1억5천만원 월세 450만원 매매가 7억4천만원

☆.광산군 대로면 운전저수지 4거리 인근 3층건물 매매가 5억7천만원

☆.광산군 대로면 4층건물 매매가 8억5천만

♣.전원주택

☆.광산구 오운동 대지 : 322㎡ 건물 : 95㎡ 매매가 : 5천만원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대 : 1,330㎡건 : 60㎡ 매매가 : 2억8천만원

♣.대지.전.담.임.야

☆.광산군 대로면 대지 : 370㎡ 매매가 : 13억5천

☆.마곡동 33,000㎡ 매매가 7억원

☆.북진동 5,600㎡ 매매가 11억원

☆.금호동 1,600㎡ 매매가 4억2천만원

☆.오지동 대지506㎡ 매매가 4억4천만원

☆.북구 운암동 프린스호텔옆 35M도로접 대지 677㎡ 매매가 ㎡당 3백만원

☆.임촌동 정학촌마을대 : 3,600㎡ 매매가4억3천

☆.광산구 옥동(평동)주거지역 1,438㎡ (원룸적합) 매매가 ㎡당 20만원

☆.광산구 우산동 2279㎡ 매매가 4,200만원

☆.장성남면 임야 : 13,500㎡매매가 : 4억5천만원

♣.주요소매매

☆.광산구 오운동 시외에서 시내방향 2복식3대 매매가 9억원(면세유 다양 판매가능)

062-374-5945
010-3162-4989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도곡원천 무인텔 객실65 감정49억 대출29억 매도34억

●쌍촌동 상가·목욕탕·주막 대지 111 건평 367 대출 5억 보증금 2억 3200만원 월세 798만원, 매도 10억7천

●금남로 3가 대로변 건물중의 1층과 2층 109평 감정 15억3천 회사용, 병환·의원 가능 가격은 협의 바람

●금남로 청일급고집 대로변 땅 247평 중심 상업지역, 영업할 필 공시지가 13억 투자기회 좋음 매도16억

●월산동 카센터 대지 34 건평 36 공시지가 매도 9550만원

●광산구 우산동 대지185 건평324 감정15억4천 임대료맞은 전세5천만원 월5600만원 대출5억5천 매도9억3천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872 공시지가 53억2천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10억3천

●동구 수기동 상업지역 282평 오스텔 원룸다가구주택적합 공시지가 6억3300만원 매도5억2천만원

●광산구 주유소 땅470 대출7억 금매8억3천 교환가능

●대인동 게임장옆 4차선도로 상업지역372 건평435 공시지가 25억7천만원 매도13억3천만원

●금남로4가 대지86 건평322 공시지가 매도16억

●중흥동 사할 대지 242 건평 487 공시지가 4억4천 매도7억4천

●대인동 버스도착대 대지63㎡ 공시지가 매도 1억3400

■매도·교환

●전원주택지, 담양군 봉선면 생교부근마을 대지168평 공시지가 매도 3400만원

●화순군 동면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중음 1억7500

●남평읍 교원리 버스도로접 211평 주택과공장 1억6천

</